

성구

독이 즉해서 허락을 이루시는 것이 더디라 하나·실상은 더딘 것이 아니라·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 3:9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電話 東京 182538
神田 25 2623 番
電報 佛 佛 佛 佛
電報 佛 佛 佛 佛
電報 佛 佛 佛 佛

各國 NCC 活動活潑化

美 NCC 援助學生運動推進
主題貫徹指導者育成

기보한 바와 같이, 今年八月 美國에 반스톤에서 開會한 第二 國에 開會한 世界大會의 結果를 맞이하여 各國 NCC (基督教會議)는 一층 活潑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美國 NCC에서는 會長인 佛蘭士의 指導로 美國 NCC에서는 對 韓國 NCC 援助方針을 發表하여, 以南의 地域에 對하여 韓國에 對하여 NCC 活動의 推進이 期待된다. 同方針에 依하여, 指導者 訓練, 放送事業, 學生運動의 範圍로 實施할 決定이라는데, 特別히 學生運動에 있어서는, 書面 援助, 訪問等 行爲指導와 訓練, 學生을 爲한 施設, 產業, 救濟, 復旦의 開發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日本 NCC에서는 지난 一月二十六日 日基督教團, 聖公會, 福音新報社, 日基督教團, YMC 同盟, YW, 基督教教育同盟等 各국의 青年指導者協會를 開會하여 世界 NCC 大會의 主題인 「世界의 希望으로서의 그리스도」를 青年運動에 實施할 主題로 하여, 그 實施을 全青年 指導者에 對해서 指示하고, 그 實施을 研究討論하게 할 方針을 세우고 그 行爲 指導는 實踐事項을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1) 青年週會 (五月二十三日—三十日)을 두어 前記 主題의 意義의 貫徹, 및 友誼 訓練의 研究協議會等 開會, (2) 일크 캄프를 國際일크 캄프와 高校 일크 캄프로 나누어 各地에서 開會하는 外에 外國의 國際일크 캄프에도 參加의 길을講究 (3) 各種修養會等을 通하여 基本 主題의 貫徹 (4) 學生傳道從事者의 連絡機關設置 (5) 美國長老教學生運動會會長 하인氏, 吳氏 (美國改革教會) 및 카렌인 부인 (美聖理教) 등의 訪問을 期하여 美國에 訪問할 青年指導者協會 開會, (6) 內外 青年指導者協會를 開會等이라 한다.

韓國國會議選 5月20日?

一教職者背信行爲警戒

韓國國會議員의 任期는 今年으로 끝나므로 오는 五月二十日에는 總選舉가 施行되리라 고 한다.
그런데 八日의 臨時議會에서 五月二十日로 決議를 하였다고 政府에서 聲明하였다. 하나, 다시十日 白總理의 言한다.

未開拓地方大傳道計劃

在日韓基十周年記念行事로

傳道局會開催

在日大韓基督教總會에서는 지난 一月二十七日 同傳道局長朴命俊牧師 (大阪市今町)宅에서 傳道局會開會하고 在日大韓基督教總會가 戰後再建의 十周年記念行事의 行까지로 未開拓地方特別傳道計劃을 樹立하였다. 同局 出席 職員은 朴命俊 田永福 金元治 金德成 各牧師 및 金錫澤 長老였다. 在日大韓基督教總會는 一九四五年十一月에 당시 日本基督教團에서 나와 在日大韓基督教總會로 된 이래 오는十一月以後로는 第十年을 맞이하게로 十周年記念行事의 行까지로 今年에는 特別히 未開拓地方의 北海邊地方, 東北地方의 仙台, 北地地方의 福井, 中地地方의 秋田, 關東, 關西地方의 和歌山, 岡山, 廣島, 四國地方의 松山, 中國地方의 小野田, 下關, 九地方의 折尾, 小倉, 福岡, 熊本, 鹿兒島, 對馬島, 各地方을 重點으로 未開拓傳道를 實施할 計劃을 樹立하였다. 成果를 나타내기 위하여 傳道講演, 映畫上映, 音樂集會等을 하기로 하고, 곧 그 講師의 交渉, 映畫等을 準備에

社說
現代青年의 思想問題

이제 다음 세대를 지고갈 청년들 가운데 그 사상과 태도가 자못 불완전한 자가 많은 것을 탄식하며 두통거리로 여기는 이가 있다. 과연 요새 청년들이 도의심도 없고 도덕관념이 없고 문란과 무례도 상태에 있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의 과두기에 있는 청년을 동정할만한 일이요, 그들을 책하기 보다는 교육자 지도자로서 자신을 책하며 그 책임을 느낄 것이 라고 생각한다.
나우는 어려서부터 그 연한 가지를 바꾸 잡아 주기에 따라서 자라며 사람은 소년절부터 잘 교육하고 지도

젊은이를 자체로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도 없고 거릴 것도 없다. 책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부담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런고 하면 과거의 도덕이나 생활원리는 실패하고 깨지고 새로운 원리를 보여주기에 전에 공산주의 같은 반동사상이나 구미의 퇴폐한 청년주의나 자유주의적 생활의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환경에 휩쓸려서 헛차게 끌리고 따라가는 자들을 부끄럽고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들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일이고 무책임한 일이다.
미군도중에 자기나라에 돌아가기 싫어 거절한 몇 사람

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피상스럽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과거의 교육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미국식자의 판단인데 이것도 우리의 주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던 일부 우리 청년들의 사상과 행동이 사납고 거칠었는 그들의 비참한 환경과 교육적 결함이 원인이 있을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이제 청년들의 사상문제를 어찌 할 것이냐 부모와 지도자가 어려서부터 정신차려서 가장 적절한 교육으로 지도할 것이요 이미 성장하고 어른 사상과 생활에 물든 자는 비참한 성의와 노력으로 지도하되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할 것이다.

名古屋教會

기보,名古屋에서 지난 一月一日부터 동지 Y.M.O.A.를 무 김우현 목사를 청빙하여 신년 부흥회를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부인송을 중심으로 지난 二月五日부터三日간 동지회 부인회 주최 특별사경회로 京都教會 朴斗奎 傳道師를 청빙하여 개최하였는데 많은 재미를 보고 끝마쳤다 한다.
岡崎 傳道所에서도 名古屋教會에 가에서 中部地方의 岡崎教會는 구정(旧正)을 이용하여 京都教會 田永福 목사

『곡기계이레』

이미 멸망한 일제(日帝)가 남긴 그릇된 제도와 의식이 그대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남아 고착되어 있는 것이 많기니와, 그 중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신사(神社) 참배, 동방요배의 형식을 그대로 우리의 제도로 받아 들여서 본국에서도 말쑥거리가 되어 있는 국기배례(拜禮)이다.

국내 어떤 지방에서는 신앙에 의하여 국기 배례를 거절하는 학생에게 압박을 가하는 교원까지 있어 기독교에서는 그 위헌(違憲)의 사실을 들추어 관계 당국에 문초한 바 있었는데, 대법원(大法院)은 문초할 것이 아니라 하며 또 전국을 포스터로一律의으로作成하되,簡單明瞭하고 効果 있는 傳道紙를 作成하되, 各教會別로 傳道의 協助者를 찾아 講習도 實施하리라 한다.

任職員會도開催

二月十五日西成教會서

在日大韓基督敎總會 新年度 첫 번인 任職員會를 오는 二月十五日에 大阪西成教會에서 開催할 것이라 한다.

查經會

正

강사로 청빙하여 二月八, 九, 十, 三日間 특별 사경회를 열 것이라 한다.

京都教會夜間學校 移動教室設置

기보, 在日大韓基督敎 京都教會에서 經營하는 야간학교는 해방직후부터 경도의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 남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며, 이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전도를 계속하는 중, 이번에는 일반 학생들의 편의를 돌보기 위함과 동포 밀집지대에 학장

교부, 내부부 당국자들은 각각 강제 경례는 불합치며, 국무회의에서도 「경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주국의 정도로 결정했으며, 그러한 사실은 큰 과실이므로 설명하였다 한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무슨 회의 같은 데서 국기 배례는 물론이요, 일제(日帝)식 복 그대로 서방요배(西方遙拜)까지 하는 곳도 있다. 이것은 조국을 멀리 떠나, 애국심이라는 어떠한 표현을 하고 싶은 심정에 맺은 것이라고는 일제시대의 버릇 밖에 없고 보니, 그만 국기 최경례(最敬禮)에다가 서방요배(西方遙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의식의 차례에 따라 한 번 했으면 그만일 것을, 일제 식 복 그대로 연단(演壇)에 오르내릴 적마다 국기에 신이 나 붙은것 처럼 자꾸 절하는 것은 재일 교포의 단체에서 여는 회의에서 흔히 보는 일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리 나쁜 것도 없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으니와 교회의 중직에 있는 사람까지 아무 반성도 감각도 없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을는지 모르나, 과거 우리 교계에서 많은 순교자를 낸 신사참배, 동방요배, 「곡기계이레」 문제와 그 본질상 하등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원집자)

社告

『福音新聞主日』의 各教會 獻金額

去年 十月 第九回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에서 決定된 대로 지난 二月七日 主日을 各教會가 『福音新聞主日』로 지키어 在日同胞에게福音을 傳하여야 할 文書傳道의 重大性을 強調하고 本紙의 運營을 爲하여 獻金하게 되었는데, 이에 今月十一일까지 本社에 報告된 教會만 우선 紙上에 發表하여 本社로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 一、金 壹萬貳拾貳圓也 東京教會
- 一、金 四千貳百貳拾六圓也 名古屋教會
- 一、金 壹千貳拾圓也 船橋傳道所

懸賞論文募集 마감切迫

本社에게 去年年末까지의 懸賞論文募集을 公告해 왔으나, 期限이 너무 促急하여 期限을 二月末로 延長하는 同時에 問題도 얼마큼 自由하게 選擇하도록 하였으니 讀者는 분발하여 應募하기 바라는 바이다.

- 一、期限 二月 末日까지
- 一、韓國에 關한 問題의 自由選擇
- 一、字數 四百字 原稿用紙 十枚
- 一、原稿付送處 東京都 千代田區神田猿樂町二ノ四 福音新聞社「懸賞論文室」로

福音新聞社

下關教會勉育任員改選

下關教會 勉勵青年會에서는 一月二十四日 今年度, 正統회를 열고 임원 개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會長 金道模, 副會長 金道模, 書記 金道模, 副書記 李潤根, 會計 崔錫均, 副會計 金再龍, 傳道部長 金道模, 智育部長 金再龍, 音樂部長 申康守, 社支部長 安成道, 以上諸氏

下關教會主日學校 陣營強化

下關教會 主日學校 教師는 지난 一月十七日 部署를 強化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校長 李光祥長老, 書記 李義守, 副書記 李潤根, 金明賢君, 男子部 高等班教師 申康守氏, 中等班 李智君, 少幼班 金再龍氏, 女子部 高等班 李義守氏, 中等班 金道模氏, 少幼班 申分任氏, 男子幼兒班 黃春子氏



望

그 큰 손에와 처참한 자취가 아직 남아 있는 이 때 지난날 一月二十九日 새벽에 또 다시 같은 영주동에서 발화해 서 네시강을 계속해 불은 결과 삼백여호를 태웠다고 한다. 아무리 불조심을 못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달아 불이 나고 또 광범위로 연소된다는 것은 피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사방에서 불이 나고 엄청난 곳에서 불이 일어나서 모두 그까닭을 의심하였거니와 이번에도 또 그러한 심이 동후하다고 한다. 아무리 불경이의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라면 그 불경이야말로 저주할만한 악마의 무리라고 할 수 있다.

파괴되고 폐허된 나라에 건설부흥은 못되나 이런 큰 대손해만 나니 어찌할 말인가 이미 손해된것은 할수없다 치더라도 다시 그런 일이나 없도록 정신차리고 불질적 손해를 되갚더라도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를 하자.

韓國의 將來는 基督教徒의 손으로

協同社會主義로 共資對抗하라

賀川豐彦先生訪問記



現代日本の 良心 是 그리스도新聞關係、다음 傳道旅行의 準備者를 是를 是의 是(東京神田區町)二층 그리스도新聞社에서 八千萬民衆에게 그 그리스도인 외치는 賀川豐彦先生을 訪 問하게 되었다.

時、四國地方의 農 漁村傳道를 마치고 이 보린다. 이하는 記者(정호)의 物음에 對한 先生의 對답이다. (사친은賀川先生)

물음-在日韓國人에게 福音을 傳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으로 인도할 사명을 본 紙(福音新聞)의 任務에 對 하여 先生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합니다.

賀川先生-福音을 全한 福音을 傳하여야지요. 예나 지금 이나 事態가 變하든지 金 수한 福音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물음-日本 안에 있는 韓國人 基督教徒의 任務는?

賀川先生-나는 韓國 基督教人 賀川先生-君은 共產主義에 對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 나쁘지! 두말없이 나쁘지! 빈민들을 짓밟고 구라 파의 여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東獨의 百萬의 民衆이 北韓의 五百萬의 民衆이 越境했다는 事實은 무엇인가? 공산주의는 노동자 를 解放시키지 못했고 농민 을 解放시키지 못하는 것이 었습니다. 특히 在日 韓國人 은 協同精神、連帶精神을 强 調하여 지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음-韓國의 앞날은 如何한 一問題는 어떻게 될까요?

賀川先生-모릅니다. 불디 크리스찬은 그런 문제에 무관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남에게는 그 통속하신 지혜로 미리 자정하신 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北韓이 저렇게 共產化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씨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크리스찬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고 깊히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장차는 진정한 크

리스찬이 조선의 前途를 차지 할 것이요, 그 世上의 眞實 이을 짓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한 말씀이 꼭 이를 것으로 믿습니다.

물음-저의 福音新聞을 通하여 在日韓國人에게 하심 말씀이 있으니까?

賀川先生-協同社會主義의 精神 으로 共產主義에도 資本主義 에도 대항하여 부각될 것입 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 의 그리스도新聞에도 쓰지 못하므로 저를 글을 적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말하 는 것은 나의 "人格社會의 本質"이란 책에 말하여 있 습니다. 그것을 번역해서라도 그런 말을 하여 주십시오

民族自覺과 한글教育問題

그 日本에서의 實情에 對하여

姜泰鼎

그러나 八·一五를 起點으로 하여 많은 認識이 是正 되었 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一部分의 民衆들 가운데는 우리말에 對하여 朝鮮前語이라하여 熱心 은 弊風이 남아 있는 것입니 다. 특히 日本에 居留하는 靑 島 大部分이 이 傾向이 심 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無理한 일로 首肯할 所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이들의 많이는 貧寒한 農村經 濟에 허덕이다못해 日本에 一攫千金의 꿈을 안고 渡日한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면 第二次大戰中에 徵用에 擄려 왔다)가 終戰後에 그들 머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子弟가 二十年 지난 오늘에 와서는 社會人으로서 부끄러워 않는 젊은 世代로 成長한 셈 이네 이 靑年男女가 셈이 들 어 社會認識이 可能해진 오늘 에 와서 日本社會는 그들의 活動할 곳이 못되고 또 活動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음-日本에서의 實情에 對하여

賀川先生-君은 共產主義에 對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 나쁘지! 두말없이 나쁘지! 빈민들을 짓밟고 구라 파의 여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東獨의 百萬의 民衆이 北韓의 五百萬의 民衆이 越境했다는 事實은 무엇인가? 공산주의는 노동자 를 解放시키지 못했고 농민 을 解放시키지 못하는 것이 었습니다. 특히 在日 韓國人 은 協同精神、連帶精神을 强 調하여 지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兩國의軍擴에利用

編集室

그 操縱者는 누구 ?

무엇이 危險한 짓이라 해도 國家와 國家사이에서 行하여지 는 外交々涉이 오로지 政府와 政府사이의 間關에 始終하는 짓보다 더 危險한 노릇이 있을까. 今日の 韓日關係는 曰우 기 國民에게 되도록이면 眞實 을 알리지 않고 일을 처리려 는 惡癖에서는 서로 共通한 兩國政府가 造作해내는 것이기 으려는 希望은 그 兩國의 國民에게 있는것이다. 그렇기에 兩國間의 友好關係가 破壞되고 그와 反對로 逆轉을 하게한 責任이 다만 兩國의 政府에만 있는가 했더니 그렇지도 않았던것을 알게 되었다. 두편은 열리고 兇惡는 바깥으로 나왔 다 問題는 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突遷日前에 吉田頑慢首相이
九州에서 宣言하였다.
「韓日關係의 解決은 오로지
軍備의 強化에 在り있다」고
그가 日本한국석에서 불을 질
렀다는 不公平性을 그대로 놓
와 둔다고 하더라도 그의 진
짜 解答은 李老大統領이 一月
三十日 公開한것이다.

「日本을 뒤에서 밀고있는 사람은 우리의 外交親旧 멜레스氏」라고.

이로서 問題의 끝나불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暴露된것이 아니다. 問題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一月二十八日 讀賣紙를 보던, 第一面에 韓日關係의 好轉은 李大統領政府의 交替이거

무런 具體的 案을 提出 못하
는 것이 제 自身 슬프게 생
각하면서 한편 假令 問題提出
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 글
을 展開시켜 問題의 核心을
追窮 하므로써 무슨 解決案을
내 주실 것으로 믿어 는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前章에 이어 더 써 볼려고
합니다.

제가 이 日本에서 가장 놀
람게 생각하고痛憤하는 일은
美소 양大國의 政策에 依한
三十八度線이 우리 韓國에서만
存在하는가고 알았더니만 日本
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南
北으로 確然히 나누어져 서로
反目하고 있다는事實입니다。
時代가 時代인만큼 할수 없는
일이겠지만 實은 이 땅에서
우리民族教育을 行하기 어려운
最大의 癌은 이 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읍니다

나 日本의 軍備擴大이거나 兩
쪽의 한가지에 依해서만 解決
될것이라는 말을 美國務省의
某高官이 池田特使에게 傳했고
池田特使는 吉田頑慢에 拂하여
前記의 吉田氏宣言으로 나탄
것이라는 記事가 있다.

된것 같다. 日本政府가 우리
1트艦을 數十척 사 贈인 다
음 날에는 韓國政府도 그보다
도 曰 急速히 現在 保有하고
있는 후리게 1트艦을 무情로
增加시켰다. 愛國者가 憤려면
鬭爭이 必要한것이기도 하다.

問題는 美國이「어느 使을 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意圖가 무엇이나』에 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또 그와같이 明白한 일은 極東의 反共陣營을 日本의 指導 (LEADERSHIP) 一下에서 形成시키겠다는 意圖이다. 왜 日本이 指導자가 되어야 하는 當然한 實情이 나오기前에「도대체 指導者란 것이 무엇이며 그 파워것이 必要었느냐」고 물어 보고 싶느냐 現다.

그러나 南國民의 友好關係는 어떻게 되며 相互協助는 어떻게 되느냐? 百萬名의 在日僑民은 어떻게 되며 고기를 바다에 둔 漁民은 어떻게 되느냐?

問題는 흔들릴 性質의 것이 아니다. 出發과 終結點은 달라졌다. 누구가 損害를 보느냐! 裏面을 훑보는 南國民에 損害를 입었으며 利益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損害를 입었으니

實은 現實이다. 結論을 좋아하
는 讀者를 위해서 이 問題를
꺼꾸로 세워 보자.
韓日關係의 惡化?는 日本政
府에 어떻게 利用되느냐. 그들
앞에는 國民의 눈을 속여 가
하고
兩國民들은 그들의 要求한 것
과 正反對의 것을 받게 되었
으며 利益이라고 생각하는 政
府는 그들의 眞實의 敵이 願
本에 맞추어 演劇을
하고 있다.

먼서 「軍隊」아닌 「軍隊」를 기르
는 手苦를 덜수있는 絶好의
機會가 나타 났다. 그들은 이
제는 半은 公々然하게 「再軍備」
라는 말을 國民앞에 내어 놓
을수가 있게 되었다.

석일의 華麗한 꿈은 門 앞까
지 온것 같다. 韓國政府는 德
澤으로 國民들의 注意를 받
으로 돌리는데 成功한것 같다
드디어 愛國者는 變質이 없게
이다.

그러나 損害를 받는者와 將
次 損害를 받는者는 서로 다
르다. 그 사이에는 時間的 差
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利
害關係가 서로 共通한 兩國國
民은 自己의 要求와 利益을
특별로 서다 보아야 할것이
더 그것이 어떻게 公公하게
變質이 되어 自己들 머리위에
덮여 씌워는가를 알아야 할것
이다.

찾는
사람

성명 王仁守 (年令 六十歲)
고향 慶南東萊 장정
이분의 주소 寓 주시면 이는 본사로
左記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 IN KOO KIM
1514 WILDER AVE HONOLULU OAHU T.H

本籍 咸北會寧郡會寧邑一洞二一五
住所 大阪市西成區鶴見橋七丁目九番地 金井有煥方
金陽三(金村昌殷)
一九四七年까지 右記住所에 居住한 后 消息이 없으
니 故 右記人의 現居住地를 아시는 분이있으면 本
社編輯部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한국의 새 宣教師

河贊憲 牧師



한국의 정신적 재건과 구령 사업에 헌신하려고 한국인으로

오른 선교사중에 또 한분으로 河贊憲목사 (REV. CHANGSUNG Hwang)는 금년 一月一日 부산에 도착하여 태전을 중심으로 전도중이라 하는데 그 부인과 아이들은 지금 니시노미야 관서학원에서 임국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허목사는 장리교 선교사로서 처음에는 오끼나와로 가려 했으나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다. 다음의 글은 부인께서 본사에 적어 보낸 것이다.

오끼나와로 가려 했으나 한국으로 보내심

하목사 부인

나의 남편과 나는 작은 나라 한국에 가서 거주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은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나의 남편은 목사인 데 새로 말을 배우기에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미국에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은 부른실 때에는 마치 고래배속

에 들어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그러한 것처럼 솔로몬은 일 같고 불만족한 일 같이 생각되는 것을 잘 이해해주었습니다. 주의 「부른심」이란 독발처럼 돌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품으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부른심」이 우리의 나같은 방법의 형식을 보여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른심」을 입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남편 찰스는 군인으로 오끼나와에 가 있을 동안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사람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필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대학 또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오끼나와에 갈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선교사의 아내가 될 작오가 있는가를 물었으나 나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심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끼나와는

우리의 선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리교 선교부에서는 우리들을 오끼나와에 보낼 자금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날 장리교 뉴욕 교회에서 우리가 알라스카 혹은 치리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부른목 박사에게로 결정적인 전화가 온 것입니다. 기계기술의 기능이 있는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약 七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가 「부른심」의 기별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훌륭한 한국인을 만났으며 또한 일년간 한국 말을 공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서적도 읽었습니다. 찰스는 지금 태전에 있고 나와 아이들은 임국허가가 나서 함께 가서 일하게 되기를 일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셔서 한국에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시길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길이 약속하시는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講壇

이삭의 신앙

창二十六·12-22 吳允台牧師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도 아니요 야곱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낳지도 않은 이 이삭 가장 적은 패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생애를 가리켜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을까? 창세기의 기자는 그 선조들의 번영을 기록하려 하면서 먼저 기근에서부터 기록했다. 이삭은 유려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네게 줄 땅이니」 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생의 생활이었다. 창세기 二六章六절에서 十一절까지 보면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카까지도 자기의 아내라고 말 못하고 자기의 누이동생이라고 할 만큼 약하고 힘이 없었다. 이와 같이 아비멜렉보다도 오히려 비천한 처지에 있던 이삭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기를 「지금에 네게 줄 때니 네 자손은 하늘에 있는 별같이 많아질 것이요 이 세상 만민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니라」 하였다. 이삭은 그 지

방에서 큰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키 하여 이 지방에서 떠나라 하였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지방에서 떠나고 말았다.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살면서 또 우물을 팠다. 불레셋 사람들은 또 와서 우물을 뚫고 떠나라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편히 수도를 사 용하고 있지마는 그 당시에는 우물이란 생명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재산이었다. 그러한 지방에는 물이 귀하고 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선을 위협하고 우리를 멸망과 패망으로 밀어트리려 한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우물도 다 내주고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삭은 그들과 접촉해서 모든 것을 뺏겨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우

물을 팠다. 이삭은 이와 같이 유랑자로 불쌍한 처지였으나 큰 민족을 이룬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의 우물은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百二十尺이나 이상되는 우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우물은 오늘날 사업가의 어떠한 사업보다 어떠한 기구보다 큰 재산이요 얻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몇 해나 걸려서 팠을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땅을 흘려 판 우물과 네 것이 아니니 너는 떠나라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날도 일하지 아니하고 거저 남의 것을 취하고 속이는 명령구리요, 출세도 못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이삭은 어리석고 뺏기고 웃기어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섹」이라

長老敎事業部門을視察하고

로론로에서 趙淇善

그 동안 알고 있었습니까? 보았으나 어떤 생각인지 적 쓸 줄	내 주신 복을 신분 감사하	한 크리스마스였었어요, 누우실 곳이 없이 말구유에 나신 주 님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아니요 아니요	받아 하나도 몰랐지 않고 다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개가 처음 맞이한
성탄절 소식을 적어 보내겠습
니다. 거든 十一月 중순에 별
씨 삼타크로스, 파레이드가 있
었는데 저도 학우들과 함께
구경을 갔었지요. 약 두시간
동안이나 행렬이 계속되는 광
장한 파레이드였습니다. 이로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데
백화점 가게, 레스토랑, 심지어
는 카페, 댄스홀까지 굉장한
장식을 하고 온 밤을 새워
가며 청년 남녀들이 춤을 추
며 돌아가는 모양은 도저히
다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이러한 광경을 볼 때 가두
속할 수 있겠어요.

전제 고아의 모함을 안 생각
하려야 안 생각할 수가 없고
여러 교우의 가정에서 분수에
넘지 않는 대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충화장 카멜론

하였으니 「다루었다」는 뜻이 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판 우물에는 「시사」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적이라」하는 뜻이 다. 그 다음에 판 우물은 「르 호넷」이라 하였으니 「넓다」 뜻이다.	는 속옷까지 가지게 하라 하였다 생존경쟁(生存競爭)의 오늘 날 우리가 이 표준으로 어쩔 게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일본에 있는 우리의 주위는 생존경쟁의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우리는 눈앞에서는 땀기는
---	--

하나님께서는
의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너
의 아버지다」 하셨다. 왜 못거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그와 같이 귀한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는 주었다.

별보다 曰 많이 퍼지며, 어찌
하어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그를 받았는가? 지금
아미엘의 자손은 어디 있
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
신다는 것을 믿었다. 인간의
번영은 인간의 수완과 힘으로

머 그 역사는 무엇인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받았다
 예수께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고 김옷을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오리를 가자 하더니 십리를 가니 이삭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사.

박사 댁에서도 하루 묵었습니
다. 카멜론 박사께서는 친하
자를 운전하시며 한나절을 허
비하여 시내와 시외 구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장로교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선교부 총무 안로 박사
를 만났고, 안로 박사의 안내
로 교회 사무소 각 부문을
견학했습니다. 三층 큰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무
실, 국내 선교부, 국외 선교부
실, 청년 교육부, 소년 교육부
수일학교교육부, 그리고 원간
잡지실 七八명의 전임 총무와
二十여명의 사무원이 十二月二
十七日(金)에 방문하고

로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특
히 각 교육부에는 각각 수명
의 전임유급 책임자가 있어
전문적으로 교회 교육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정기 간행
물만도 일년에 근 十종류가
나오고 있었으며 지하실에 二대
의 인쇄기가 돌고 있었읍니다
교회 사업을 각 방법으로 전
력을 다하여 연구하여 큰 성
과를 거두도록 노력하는 모양
을 보았읍니다. 청년 교육부에
에서 여러가지도 계획하고 있
는 설명과 간행물등 자세히

보았는데 그 대략한 연구와 계획에는 불렀을니다. 벌써 여러 캄프 계획까지 되어 있으며 일반 사회에 뉘얼어지지 않는 청년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였을니다. 우리 총회도 작은 살림이지만 한 사람의 유담총무라도 두어 전문적으로 총회 각방면의 일을 계획하고 연구하여 효과적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곡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다음 二月二十日에 열리는 선교사회에 다녀오면 그 소식도 알려드리겠읍니다.

(四面三段에서 계속)

(福音新聞의編集方針에關하여)

敎會指導者들중에서 우리과新聞에 채택하고있는 理念을 오히려신다는것은 理解하기 곤란한 일이다. 이곳에서 비판되는點의 몇가지와 疑問되는點을 드려가지고 新聞의 起

의 취지에 關한 說明은 附錄에 載 있다.

첫째로 「福音新聞」은 항상, 共產主義의 宣傳을 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둘째로 「福音新聞」은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셋째로 「福音新聞」은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넷째로 「福音新聞」은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國民을 共產主義에 誘導하고 있다.
---	---	---	---

疑問이 이러나기 萬無한 일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와같은 疑問이 이러나기 萬無한 일이	王韓 共產主義가 무엇이며 共産主義가 무엇인가를 共産主義가 무엇이며 共産主義가 무엇인가를	教人들에게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에 넘여가지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만적宣傳을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잘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기만과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며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福이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사랑하며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들은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疑問이 이러나기 萬無한 일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와같은 疑問이 이러나기 萬無한 일이	王韓 共產主義가 무엇이며 共産主義가 무엇인가를 共産主義가 무엇이며 共産主義가 무엇인가를	教人들에게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希望하고 있는것이	에 넘여가지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望도 韓人 希望	만적宣傳을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一除하며 이 宣傳	잘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알고있기때문에 그들의 기	기만과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邪惡의 行爲를 너무나	며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이분들은 共產主義者들의	福이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내릴것을 希望하고 있으	사랑하며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은혜界人類에게 이 祝	들은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이분들은 民主主義者

主主義를 옹호하며 共產主義를 反對하는가 그新聞의 이유를 이해하실것은 分명한 일이다. 野田한 共產主義가 힘을 얻게될때 基督敎會를 치벌하며 처부시는데 反對하여 民主主義諸國에서는 基督敎가 成長하며 繁盛하고 있는것이다. 共產主義와 타협하는 敎會라면 그如何를 不問하고 그것은 基督敎人이 아니며 따라서 共產黨의機關에 不過하게 될것이다. 또한 「基督敎人이나 敎會의新聞으로서」는 은國民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것이 그 目的이며 그렇게 된다면 共產主義로부터 아무런 위험도 받지않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시는 文들이 있을것이다. 實心히 國民을 예수님께 인도하는것이 이新聞의 目的이란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新聞의 大部分을 종교記事, 牛草, 說敎, 및 종교敎理에 대한 小説을 다스

많은 罪惡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新聞을 이것을 指適하지 않는가? 하고 質問하신편도 있을것이나 이러한 質問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無知를 나타낸것이다. 資本主義만 單히 商業을 이행하는 經濟的 方策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政治的 制度가 아니며 全人類을 奴隸로 만들며 世界를 征服하려는 制度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新聞이 유지되도록 資金을 調達하여 주는분들이 資本主義가 世界를 征服하려 하는 危險性에 對하여서는 全然 두려워하지 않으며 現實에 運行되고 있는 이 制度로 부터 아무런 恐怖도 느끼고 있지않는것이이며 이분들은 韓國에나 日本에게 사느냐 여러분들도 資本主義에 對한 恐怖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田榮澤作

광명의 새세계

원방과 어울려서 오죽 짜리
전등 한개가 천장에 달라 불
은것이 안질난 눈으로 방을
두 침침하고 갑갑하던 그 불
빛도 없어졌는지 명애를 보고
영창감방에 들어온 태호는 팔
은 해가 벌써 저물어서 컴컴
한 방이 아주 어두운 밤인듯
이 앞이 캄캄하여서 발을 울
거 놓을수가 없다. 감방이 어
둠다기 보다 태호의 마음속이
어두운 것이다. 명애를 만나볼
때에 약간의 광명을 찾은듯
하였으나 명애를 작별하고 돌
아서 감방으로 들어오자 그의
마음에는 일점의 광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친구도 없다 사랑도 없다」
겨우 한편 모퉁이 담을 의
지하여 담에 고개를 자르고
주저앉은 태호는 한숨을 내쉬
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것
은 민을 생각하고 그밖에 몇
친구를 생각하고 해련을 생각
하다가 「이제 내가 가진 몸이
되고 보니 어느 누가 나를
생각하라 강아지새끼 하나 얼
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러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명애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
게 된 태호는 차차 마음의
심마리가 돌아서 한목사를 기
억하게 되었다.

「한목사님 한목사님!」
이북에 공산군이 들어온 다
음에 여전히 열심으로 전도하
면서 그네들과 타협을 아니하
고 굴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 그리고 한국역사의 원고가
문제되어 잡혀 가쳤을 때에
조금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였다는 말
과 언제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그 위대한 인격과 신앙
을 흠모하던 것이 기억되어서
자기도 그런 초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
: : :」

한목사의 본을 따라서 기도
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
으나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을지
몰라 잠시 멍하니 앉았던 태
호는 문득 머려서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외우던 기도문이
생각나서 이렇게 중얼거리보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를 사하여 주옵소서 : : :」
이런 귀절에 이르자 태호는
다 생각나지 아니한다. 기도의
말을 잊어버렸다기 보다 마음
에 찔려서 말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놈들 어디 보자 다 싶어
넣는다. 놈들 죽여버린다. 나를
여기다가 싶어 넣어 도둑놈들
이렇게 마음에 칼을 꽂고 단
단히 결심했던 태호는 기도문
의 이 귀절에 이르러서 더구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 : :」 하는 귀절을
가슴이 뭉클하고 글이 땀 한
것이 마치 무슨 못할 짓을
하고 큰 죄를 저질렀듯 같이
이윽고 가슴이 활랑거리기를
시작한다.

「내 죄를 : : 내 죄를!」
자기도 모르게 태호의 입에
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
하였다.

「하느님 하느님」
다음에는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다. 태호의 감은 눈에는
해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가 관계된 여러 여성의 추악
한 꼴과 자기의 꼴과 또 해
방후에 조국에 돌아와서 돈밖
에 모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면
서 나라를 팔아먹으나 다름없
는 일도 태연히 하던 일이
생각나서

「하느님 내 죄를 내죄를」
하고 중얼거리다가 그는 가슴
이 답답하고 무겁고 아픔을
느껴서 방바닥에 쓸어들었다. 그
리자 방바닥에는 자기도 모르
는 물이 고였다. 가슴을 점점
캄캄한것 같았다.

고요한 겨울밤은 깊어간다 : :
「명명 명명 명명 : : :」
멀리서 새벽종이 울려온다.

京城料理 美登利園

東京都千代田區有樂町2ノ13
有樂町驛中央出口前
電話 丸ノ内 (23) 5327番

福音醫院

本醫院은醫療傳道를目的 하고開設한
內科、小兒科、外科、內臟外科、産婦人
科、皮膚科、性病科、各科擔任醫師完備

一、治療時間

午前九時—十二時
午後二時—五時
午後六時—九時
往診隨時宿直醫師二人有

一、特別健康相談部

1、兒童健康相談部
毎月第二、四木曜日
自午後六時—至八時
相當醫師元京都府立醫科大學教授
醫學博士 三宅 廉

2、結核相談部

毎月第一、二、三、四木曜日
自午後五時—至七時
擔當醫師 醫學博士 長岡弘道

場所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九〇九ノ四七
(前南方教會堂)
但阪急南方驛前徒歩約二町